

에 필 로 그

책을 마무리 하면서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하려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나 하는 아쉬움이다. 사실, 여기서 책을 마무리할 계획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연이 우리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었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로 여기에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나는 가끔 논문을 지도하는 학생들과 지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사실 대부분 학생들은 오랫동안 강의 등을 통해 나에게 세뇌되어 버렸다. 지리학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교과서를 보면, 지리학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는 그 속에서 주민 생활을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리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깊고 고뇌에 찬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라기보다 경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였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지리학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나와 내 주변 학생들은 자연지리 분야에 속하는 기후학을 전공으로 삼고 있다. 자칫 오해하면 기후학은 자연현상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외국에 기후학을 공부하러 간 제자에게서 메일이 왔다. 지리학이 무엇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인접 학문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아마도 인접 분야 사람들과 토론을

별인 끝에 보낸 메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지리학은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이어 주는 학문이라는 점이 다른 학문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고 지리학과 학생들을 마주한다. 그러다 보니 때론 억지로라도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연결지으려 노력한다. 물론 그러다 보면 연결고리가 이어지기도 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지나치게 억지를 부린다고 하기도 한다. 야외 답사를 나가면 학생들에게도 보이는 모든 것을 두고 연결지어 보라고 강요한다. 그래서인지 야외에서는 학생들이 나를 피하는 눈치이다.

이제 원고를 끝냈다 생각하니, 이런 저런 두려움이 몰려온다. 뭔가를 억지로 이으려고 애쓰지는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다. 이 책도 자연과 인문을 이으려는 시도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결국 그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이 에필로그까지 남기게 되었다.

항상 '시작이 반'이란 말을 믿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지만, 이 책의 경우 시작은 시작일 뿐임을 깨닫게 하였다. 아일랜드 책을 마치자마자 '남의 나라 책도 썼는데' 하는 착각으로 시작해서 만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글이 좋아지게 마련이지만 그러지도 못하였다. 아마도 감히 전공 분야가 아닌 지형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겨우 일년을 살았던 아일랜드보다 평생을 살아온 한국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